

화순, 지난해 ‘스며드는 문화·관광’ 정책 빛났다

야간콘텐츠·체류형관광 구현 등 문화생활 일상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글로벌 확장 가능성도 입증

화순군문화관광재단이 지난해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군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를 확대하고 체류형 관광 기반을 구축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올렸다.

13일 화순군관광재단에 따르면 ‘문화는 일상이 되고, 관광은 길이 된다’는 비전 아래 세대별·생활권별 문화사업과 공간 기반 문화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문화가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관광으로 확장되는 구조를 만들어 왔다.

문화 분야에서는 ‘꿈의 무용단’을 비롯해 중장년 대상 인문 프로그램, ‘구석구석 문화배달·문화가 있는 날’, 가족 참여형 ‘가가호호’ 사업 등을 통해 군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과 ‘문화예술인 DB 구축사업’을 통해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행정의 기반을 다졌다.

공간 기반 문화관광 활성화에도 힘을 쏟았다. 남산공원과 화순읍 일대를 중심으로

‘2025 미리미리 크리스마스 Vol.2’, ‘남산 문화점령’ 시리즈, ‘와글와글 밤시장’ 등 공연·체험·야간 콘텐츠가 결합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체류형 문화관광 모델을 구현했다. 이를 통해 약 4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남산공원을 사계절 문화관광 공간으로 확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관광 분야에서는 젊은 감각을 접목한 생활권 관광 확대에 주력했다. 민간관광안내소를 운영해 음식점·카페·숙박시설 등 총 12개소를 관광안내 거점으로 지정·운영하며, 지역의 일상 공간을 관광자원으로 확장하고 생활인구 유입에 기여했다.

또 ‘화순 역사·문화탐방 프로젝트’를 통해 버스투어 형식의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 화순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구성해 관광객의 이해와 몰입도를 높였다.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에서는 화순홍보관을 운영하며 전통 치유 음식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여, 화순 미식 관광의 차별



화순군문화관광재단이 지난해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군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를 확대하고 체류형 관광 기반을 구축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올렸다. 사진은 왼쪽부터 ‘내나라여행 박람회’ 참가 모습과 2025 미리미리 크리스마스 Vol. 2 행사 모습.

성과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알렸다.

글로벌 관광 분야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재단은 ‘화사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서울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로컬 여행상품을 개발·운영하며, 화순 관광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외국인

대상 1박 2일 체험형 여행, 한양대학교 교환학생과 연계한 2박 3일 취업캠프, KTX 연계 당일치기 상품 등을 통해 200여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화순을 방문했다.

재단은 올해에도 문화와 관광이 만나는 현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이어가며, 프로그



화순의 새로운 이야기 ‘화사로와! 화순’을 통해 화순만의 흥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구종현 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지난해 문화와 관광 사업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

한 결과 성과가 가시화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자원을 콘텐츠로 확장해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문화관광을 통해 화순만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나주, 겨울방학 미국 어학연수 설명회 개최

참가 학생·학부모 60여명 대상
홈스테이·스쿨링 정보 등 연수

나주시가 겨울방학 미국 어학연수 참가자로 선발된 학생과 학부모 6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동신대에서 2025 미국 어학연수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어학연수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어학연수 전반에 대한 설명과 준비 사항 안내, 전년도에 어학연수를 다녀왔던 선생님과 학생들이 경험한 홈스테이와 스쿨링의 유용한 정보 등을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으로 진행됐다.

또 참가 학생들을 조별로 나눠 모임을 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미국 연수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시가 지원하는 이번 미국 어학연수는 오는 23일부터 2월 8일까지 미국 메릴랜드주 세인트 빈센트 팔로티 고등학교에서 진행된다.

나주 중학교 2학년 학생 28명이 미국



나주시는 겨울방학 미국 어학연수 참가자로 선발된 학생과 학부모 6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동신대에서 어학연수 설명회를 개최했다.

학생 가정에서 홈스테이하면서 정규수업 참여하며 외국어 역량 강화와 문화 체험, 현지 적응력을 높여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는 방식이다.

또 명문대학을 탐방하는 등 미국 문화를 현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정으로 이뤄져 있다.

시 관계자는 “미국 어학연수를 통해

국제적 경험을 쌓고 안목을 넓혀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길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초등학교 4~6학년 80여명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동신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기숙형 영어 캠프도 운영한다.

수준별 6개 반에 학급별로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여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 기본 어학 수업, 신문·방송 뉴스 제작을 배우는 주제 수업, 수학·과학·체육의 교과 연계수업 등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

고흥,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처분도우미 운영

과세 관리정보시스템 도입...행정절차 간소화 기대

고흥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대체압류·결손처분 등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고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처분도우미’를 도입·운영한다.

지난해까지는 기존 문자서비스로 총납 부담액과 가산세와 정보만 제공함에 따라, 상세 미납 내역 등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유선으로 재안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 체납 건별로 고지서를 제작·발송하고 결손처분 및 대체압류를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행정비용 부담과 부실체권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처분도우미’시스템을 도입·운영을 통해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체납 상세내역 등 환경개선부담금 정보를 납부자에게 제공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전체 체납내역을 한 장의 통

합 안내문으로 제작·발송해 과다한 행정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행정시스템의 과세 정보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차량 정보를 비교·분석해 폐차 말소된 압류 차량에 대한 부실체권을 정리하고, 체납자의 신규 등록 차량을 즉시 대체 압류함으로써 징수를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3월 중 국토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연계 사용이 승인되면 납부자가 체납 건을 납부하는 즉시 실시간으로 압류 건이 자동 해제되고, 해당 내용이 알림톡으로 통보되는 기능도 추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처분도우미 시스템 도입을 통해 납부자에게 체납내역과 관련 정보들을 자세하게 제공할 수 있어 납부자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워터린사워솔루션은 이렇게 다릅니다

- 초미세녹물까지 차단하는 고성능필터
- 샤워후 잔류하는 잔수를 자동배출
- 휴대용, 여행용 대용량 필터유닛
- 자유로운 수입조절 및 절수기능

동행 지역소상공인

Water linn

보다 더 나은 다름

워터린은 오염되지 않은 자연의 물처럼
당신의 일상에 깨끗하게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곡로 399-18, (주)지연비솔루션 · 전화 : 062-716-0999 / 팩스 : 062-716-0998 · 메일 : water-linn@naver.com